

##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9-18)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그 바뀐 흐름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흐름도 바뀐다. 그리고 나라의 역사도 바꿀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이다.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복음 가진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기 바란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에게 한 해동안 주신 영적, 육신적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이런 절기들을 만들때에는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해서 매해 지키게 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저주에서 건지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 언약을 설명하고 그 안의 축복을 설명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만들어진 절기이다. 어린양을 구워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이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창3:21에서 나왔다. 이 피는 세상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피는 사단을 꺾고 인간을 저주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다. 그 날과 같이 똑같이 행하게 하심으로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노예에서 해방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이 언약의 피를 지키는 날부터 7주,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다. 이 날은 보리를 거두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다. 안식후 첫날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다. 그 날 우리의 첫 열매 보리 한단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이 날 임하셨다. 계속 이렇게 맥추절을 통해 예언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신다. 그 약속이 이날 이미 왔다는 것이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가을걷이를 마친 후에 드리는 감사절이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열매, 석류등을 가을에 거둔다. 그것을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다. 겨울을 위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하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배경인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다.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많이 생긴다. 다 중요하지만 전부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인간이 저주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 것, 이것 말고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세 절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말하고 있다. 어디든지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이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방법이다. 언약으로 들어오고 발견이 되고 눈이 열리면 해방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날이 오면 해방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해방이 마음에 들어오면 정복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은 약속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유월절은 50일째, 안식후 첫날, 부활의 그날, 성령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아무 때나 안 오신다. 약속해 놓으셨다. 그 날에만 오신다. 그리고 그 날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오순절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 것이다.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이다. 6시간이나 못에 박혀 매달려 있다 돌아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지체라고 한다. 그것이 눈 열린 것이다.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영동한 것을 자꾸 하게 되어 있다.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눈 열려야 한다. 눈이 잘 안 열린다. 방법이 하나 있다. 말씀을 받으면 된다. 엘리야 몰랐다. 죽으려고 했다. 그것이 아니다. 지금. 왜 몰랐냐면 말씀이 안 임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임하니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중요한 메시지이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말씀 받는다. 그리고 말씀은 그대로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런 인생을 이미 우리의 인생에 바탕에 깔아놓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말씀 받아야 한다.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는 최고의 감사의 날이 오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언약으로 삼는날,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으므로 축복 받기 바란다.

### 1. 세미한 소리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들일 것이다. 전에 본대로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한꺼번에 죽였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대들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렘산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가는 중에 8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물과 떡을 두 번 주었다. 그것 먹고 난 후 40주야를 달려갔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호렘산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앞에 서라고 하셨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 먼저 11절에 보면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갔다고 했다.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불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나가 섰다. 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15절에 보면 다메섹에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1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다. 이것이 받은 말씀이다. 사명을 주신 것이다. 세계의 역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난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싹 죽였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로 이 예후가 죽였다. 850명 죽은 후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우상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명하니까, 그들을 싹 모아서 다 죽였다. 열왕기하 10:11절에 보면 이 예후가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한 것이다. 너무나 악하게 우상숭배한 아합왕의 모든 것을 청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주제이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말씀이 임할 때.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역사를 바

꾸어 버린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말씀이 임할 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언약이 되어야 한다. 말씀 한번 듣고 바뀌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바뀔지는 모른다. 한명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받아서 성령처럼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때라서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한번 어디에 갈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내냐고 하였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일년에 반세겔씩 꼭 내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다에 가서 낚시해라.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안에 한 세겔 있을테니 나와 나의 세금을 내라고 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의 근원이 고쳐졌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껍데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하다. 이 여자는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왔다. 그렇다면 나는 옷에 손만 대면 끝난다. 이렇게 믿고 조용히 와서 옷에 손을 댄 것이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끝났다. 들어온 말씀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소문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온 것이다. 너는 옷에 손만 대면 끝이다. 말씀이 들어온 것이다.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잡혀갈 때, 풍랑을 만나서 14일이나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 너무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것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다. 사도행전 17:14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 것이다. 두려워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나와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네게 주셨다고 하였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전달된 후 풍랑이 그쳤다. 14일이나 지속되었던 풍랑이 말씀이 전달되니 끝났다. 그리고 한 섬에 도달해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한 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도 하였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큰 소리로 받거나 요란하게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큰 소리든, 세미한 소리든 말씀을 받아야 한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면 성공한다. 정복하고 살리는 인생 될 것이다. 작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한다. 여기에 속으면 안된다. 답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이 답이다. 말씀대로 하면 사단은 아무 힘 없다. 낙심해서 우리를 포기하고 무릎 꿇는다. 진짜 결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답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다. 진짜 발견하는 은혜 있기 바란다.

## 2. 사명

엘리아가 결국 받은 것은 사명이다. 사명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요 답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명을 누리는 중에 그리스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사명의 권세이고 신분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와 한 연장선 상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 만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사실 1부 메시지는 근본이지만 일차적이다. 메시지가 근본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 그리스도. 어디서든지 중요하다. 누구에게든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 소원을 이해한 자에게 준

비된 축복이 따로 있기도 하다.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이다. 이 전도자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더 정리해야 할 단어들이 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메시지 속에 듣는 새로운 단어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2부 핵심예배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1부예배 내용대로 응답 받으려면 2부 예배에 나오는 단어가 거의 필수적이다.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음 하나로 완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언약 하나로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인생에는 원리만 있는게 아니라 크기, 넓이, 깊이가 있다. 이 근본을 더 크게 하고 더 깊게 하고 넓게 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도 이해가 필수적이다. 내가 제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2부 예배에 빠지는 것 보고 마음에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때로는 유감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번도 말해본 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정복하는 인생 되려면 2부 예배에 나오는 단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도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자의 길에 서는 것은 복음을 끝까지 누리는 것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누려야 한다. 내 기도의 핵심과 중심에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 신앙생활 하는 현지인들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가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절을 특별히 광고 붙이는 것도 보았다. 미국교회중에서 일년에 한두번이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는 것도 귀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성경적 응답 못 받는다. 우리는 남미에 복음 운동을 시작한 교회이다. 끝까지 진짜 가겠는가? 나는 간다고 믿는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거기서 이 운동을 계속 하면 하나님이 남미의 흐름을 바꿀수 있다고 믿는다. 문화 바꿀수 있다. 천주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데로 하면 된다. 사도바울의 전도를 기록한 것은 내 전도는 이것이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 제자를 보내는 교회.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안디옥교회라고 한다. 그것을 보고 사도바울같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 일어나면 천년의 응답이 될 것이다. 남미에 이 일이 일어나면 적어도 백년의 응답이다. 엘리아가 이 사명을 받았다. 말씀으로. 반드시 응답 나타나고 정복하는 인생 된다. 전도자의 길에 서야 한다. 말씀 들어오면 할 수 있다. 남은자 뿐 아니라 순례자도 되었을 때 정복하는 인생 살 수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리는 은혜 있기 바란다.

말씀이 들어오면 늘 힘이 된다. 나와 상관 없이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일을 할수 있는 힘과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내 기도가 된다.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것 많이 있다. 해결될 문제 많이 있다.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말씀 받으면 된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 받는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건 역사를 반드시 할 것이고,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된다. 오늘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일년간 받은 열매에 감사하는 날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 바란다. 그리고 진짜 무릎 꿇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말씀을 주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못 막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답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최고의 추수감사절 되기 바란다.